

포천시,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동

경기도 포천시가 축산분뇨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(Biogas Plant) 사업에 나섰다.

포천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월20일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포천시는 영중면 영송리 1만4279㎡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태영건설은 2011년까지 245억원을 들여 하루 300톤의 축산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설해 23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·채납할 계획이다.

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(Methane)과 CO₂(이산화탄소) 등으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사업이다.

포천시는 한우와 젓소 2만6000마리, 돼지 25만마리 등을 사육하는 축산도시로 플랜트가 가동되면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전력과 난방열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포천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사업은 2007년 독일기업과 양해각서(MOU)를 맺고 야심차게 추진됐으나 독일기업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 투자자를 제공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20>